

임실군 지역발전사업 '결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가 '호응'

임실군이 이웃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계협력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가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생활권을 이루는 순창군과 남원시와 함께 '임순남' 파트너십을 맺고, 상생과 협력의 주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 임실군이 올해까지 추진해온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의 국가공모사업은 모두 7개로, 이들 사업들은 지역행복생활권 운영평가 우수기관과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추진기관 선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임순남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됐다.

그동안 3개 지자체는 주관 또는 참여의 형태로 도농인력지원센터와 산모보건지원센터, MICE산업 등을 군민소득 제고와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해 왔다. 이 중 임실군이 주관한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는 일순부족을 겪는 농가들에게 도시 및 관내의 유휴인력을 공급하면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간 7천7백여명의 농업인력을 공급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올해에는 임실군이 주관하고 순창, 남원이 참여하는 '고령 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운영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기계 임대 및 사용이 어려운 소규모 고령농가와 영세한 농가에게 귀농·귀촌 및 유휴인력 연계를 통해 농기계작업을 도와주는 이 사업에는 총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실군은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의 대표적 국가공모사업인 새마을사업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선정되면서 지역발전사업의 선도

적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주거여건·안전·위생이 취약한 농어촌 취약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인프라를 개선해주는 새마을사업에는 2015년 임실 감삼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2016년 운암 쌍암마을, 2017년에는 관촌면 방현마을이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 중에 임실 감삼마을 사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임실군은 2016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추진기관과 2016 지역행복생활권 운영평가 우수기관 등의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임실치즈를 대표하는 지정환신부가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의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지역산업진흥유공 대통령 표창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우수한 성과는 일관된 균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역량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심민 군수의 균형운영 능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풍천장어 디지털 홍보 전시관 설치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 단지 내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풍천장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 단지 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에 디지털 홍보 전시관을 설치하고 24일 개관했다.

이날 박우정 군수와 주민들이 함께 홍보 전시관을 둘러봤으며 전시관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관광객들이 쉽게 고창 풍천장어의 특성과 다양한 효능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로 제작 전시돼 있다.

풍천장어 홍보 전시관은 7억여원을

들여 지난해 8월 착수해 지난달 2월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간 시문전 등을 거쳐 이날 개관하게 됐다.

홍보 전시관 1층 홀에는 고창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시설 등을 소개하는 미디어 풀과 휴게실을 배치했고 2층 입구에는 디지털수족관을 설치해 아쿠아리움처럼 연출하였으며 안쪽에는 파노라마 입체 상영관과 풍천장어에 대한 유래 등을 알 수 있는 장어 이야기 코너, 풍천장어 생산과정, 풍천장어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과 양식장어의 생산과정 등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조성됐다.

또한 디지털 장어낚시와 미끌미끌 장어잡기 체험 등이 어우러져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이 체험하면서 장어의 효능과 맛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전시했다.

한편 홍보전시관이 들어선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는 지난 2010년 해양수산부 수산거점단지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을 포함 총 사업비 60억원 중 일부는 디지털수족관을 설치해 아쿠아리움처럼 연출하였으며 안쪽에는 파노라마 입체 상영관과 풍천장어에 대한 유래 등을 알 수 있는 장어 이야기 코너, 풍천장어 생산과정, 풍천장어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과 양식장어의 생산과정 등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조성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크기 작은 블랙망고 수박 '호응'

전국 최대의 수박 주산지인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과채 소비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맞는 수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작은 수박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인 가구와 핵가족 소비자 등을 겨냥해 크기가 작은 수박인 '블랙망고 수박'을 재배해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여 높은 호응을 얻

었다. 올해는 성내면, 아산면, 무장면 등 39농가에서 13ha를 재배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며, 2월 말 첫 정식을 시작으로 3월말 정식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블랙망고 수박'은 겉은 검고 속은 노란색을 띠며 무게는 1통이 3kg을 갖 남을 정도로 작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는 14브릭스 이상으로 아주 달다. 작은 수박은 크기가 작고 껍질은 얇아 쓰레기 배출량도 적어 최근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작은 수박 생산을 위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정식 전 작은 수박 재배기술교육도 추진했으며 정식 후 부터는 농가를 대상으로 1:1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여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내몸 다스림' 힐링 교육

풀무원 직원들 대상... 힐링트레킹·훈몽재 예절교육 등

풀무원 건강생활 직원들이 순창의 건강한 매력에 흠뻑 빠졌다.

순창군은 풀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 몸 다스림'이라는 힐링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6일 순창군과 풀무원건강생활이 순창의 건강한 식문화 콘텐츠를 전국에 확대 하기로 한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된 첫 사업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숙배교수의 '100세 시대의 건강한 식생활' 특강을 시작으로 당뇨예방 및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LOW GL(LOW Glycemic Load: 할당부하지수)식단 실습, 근력강화를 위한 필라테스, 숲속 트레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숲

속에서 위치한 건강장수 연구소와 힐링트레킹, 건강장수체험과학관 등 청정한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군측은 설명하고 있다. 또 감천산 트레킹 및 훈몽재 예절교육, 토굴 및 전통고추장민속마을 견학과 농특산물 직관장 방문 등 순창군의 힐링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더욱 교육생들이 즐거워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순창군과 풀무원 건강생활 측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을 위한 건강 식문화 관광 및 농촌 6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공동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내몸다스리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진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원철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공설전통시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가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남원시는 공설전통시장에서 제252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갖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최근 소재포구 어시장 화재 사고를 거울삼아 화재 등 사고 위험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이현웅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등 관계공무원과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의용소방대, 민간예찰단,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문화실천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 200여 명이 함께 모여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점검은 남원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공설전통시장 내 소방·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상가 주변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이용 수칙과 봄 행사철 관광지·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홍보를 펼쳤다.

특히 상인들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2.6~3.31.) 기간 동안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조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재난취약요인 신고 활성화를 당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치즈 부산서도 큰 '호평'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임실치즈가 부산에서도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사업단(이사장 심민)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했다.

농림부와 부산광역시 후원하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맛을 입히다'를 슬로건으로 300여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바이어 등이 참여한 대규모 박람회이다.

사업단은 임실치즈와 요거트 등 50여년 전통의 우수한 유제품을 판매하고 무료 시식도 병행하는 등 부산·경남 지역 소비자 공략에 열을 올렸다.

특히 국내·외 바이어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맛있고 재미있는 치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심민 군수는 "박람회를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와 명성을 가진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비롯해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